

與, 6·3 재보선 공천 초읽기... 후보 배치·선거연대 고심

내주부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가동 수도권·부산 등 격전지 후보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선과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6일 세종시장 후보, 18일 제주지사 후보 공천을 끝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한다.

이에 맞춰 17일 재보선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재보선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총 13곳이다.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부산 북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제주갑 또는 제주 서귀포 등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에서 추가로 보선이 열릴 수 있다.

이처럼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국회 의석을 한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내부 교통정리와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대까지 얽힌 고차별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보선에서는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에 출마할 여당 후보가 누구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인재 영입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경쟁하는 구도다. 인천 연수갑까지 보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안산갑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당 대변인과 친문(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전 의원

이 출마를 선언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현직 참모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하 수석의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 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남아가고 그러면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플랜B'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선거가 인지도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내에선 부산 출신인 전은수 대변인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적 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 대변인의 경우 경기 하남갑과 충남 아산을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른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당 원 부원장도 공식적으로 경기 보선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된다.

김 전 부원장의 예상 출마지로 안산갑, 하남갑, 평택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민주당이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

혁신당은 평택을 재선거가 민주당 의원의 귀책 사유로 처리되는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재보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회동했지만 선거연대 논의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 왼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송 원내대표 오른쪽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중동 위기 머릿 맞댄 여야정... 진단·해법 이견

한병도 "민생"...송언석 "표플리즘 몰두"

여야 원내대표 매주 월요일 회동 방침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모두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원인과 처방에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동발 위기가 에너지,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동 전쟁과 관련해 야당이지만 대응적으로 추경뿐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합의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정부·여당에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큰집인 민주당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회동을 하고 입법·예산 조치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등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견해를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三高) 압력이 거세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버티고 있다. IMF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고, 국민도 차량 2부제 동참으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위기의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해 (표)플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환율 상승을 두고도 정부는 '서학개미 닷', '전쟁 닷' 등 남 탓만 하며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안정 기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계원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필요"

"산단 위기 장기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은 16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진수기자

광주-인천 국내선 유치 항공업계 간담회

정준호, 지역민 이동권 보장 대책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5일 한국항공공사 광주지사에서 '광주공항-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교통 공백 해소와 광주·전남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폐쇄로 인해 발생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항공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국



토교통부, 한국항공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항공업계와 광주관광협회, 광주시,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준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인 만큼,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이동권이 희생돼선 안된다"며 "광주공항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현실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인천 국내선의 도입과 안정적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광 활성화, 지역 접근성 개선, 국제선 연계 강화, 지역 경제 회복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직접 이동이 어려운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 제주-인천 노선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광주-인천 노선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출입국 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국내선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한번에
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로깅크!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기본생활권외 이용가정당 0.7% 수수료 적용
·신용 4월/월 2% 적립 / 월 영: 1% 적립
·국제공항 렌터카유리비 서비스(월 1회 제공)
·농협 안전·고급·스마트·보험·이체수수료
행복을 위해 만ne

항상·신뢰·가려 걱정·피로,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

일평균 3만 원에 달하는 연회보험료 30% 할인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100세까지 매년 보장

·20~80세, 유증자도 간편 가입 가능
·100세까지 비정상행(해당특약 가입시)
·경신형 담보 제공
·첫날부터 의료보험 및 첫날부터 보험
가입자 1% 할인

유연한 신용대출 통합사실조회도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농지매매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등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등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